

2024 SPRING Vol.61

박물관풍경

風景



집단적 기억

시도 분교

사진 조오다(편집위원)



CONTENTS



표지스토리

1996년 3월 1일, 전국의 모든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

04 | 박물관 소식

06 | 소통이 미래다

08 | 기획 I
국민학교와 초등학교, 그 변화와 의미

12 | 기획 II
난 내일부터 초등학교에 다녀요

18 | 기획 III
교실의 변화는 이제부터다

22 | 인천人터뷰
⑨ 이토록 뜨개에 진심
'땡스' 대표 신미하

26 | 인천기자수첩
⑤ 너의 낭만을 위로하는 나의 고백

30 | 인천나무이야기
① 도시에 살아남은 사람살이의
오랜 흔적, 인천의 큰 나무

34 | 박물관 일정

창간일 2009년 3월 1일 발행인 손장원 발행일 2024년 3월 10일

편집위원 김명숙, 김유나, 김윤희, 이지영, 이희인, 임해승, 정미리, 조오다, 최영애 교정교열 김시언

제호 이태웅 표지그림 김예지 디자인·인쇄 디자인하다MK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60번길 26

전화 032-440-6759 이메일 ic-museum@naver.com 구독신청 전화 혹은 이메일

MUSEUM NEWS



한·중·일이 모여 동아시아 해항도시와 섬을 탐구하다

2010년부터 한국의 인천시립박물관, 중국의 리순박물관, 일본의 기타큐슈시립자연사·역사박물관의 교류가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 2023년 12월 6일에는 각 박물관의 관장이 인천에 모여 회의를 열고, '동아시아 해항도시와 섬'에 관한 심포지엄을 진행해 삼국의 문화를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함께 만들어가는 박물관을 위한 노력, 자원봉사단 정기총회

지난 2023년 12월 9일, 인천시립박물관 석남홀에 팔십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였다. 2023년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이날은 2023년 자원봉사단 운영 현황 보고와 운영진의 연임을 결정했다. 한편 특별 행사로 새로 부임한 손장원 관장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됐는데, 향후 이사할 뮤지엄파크 도면을 함께 보기도 했다.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가는 박물관이 되기를 바란다.



사람 얼굴을 닮은 덕물풍 모양 램프를 만들어요!

기획특별전 <덕물풍, 마음을 걸다> 전시 종료를 앞둔 2월, 전시 연계 어린이 겨울방학 교육 '나만의 덕물풍 램프 만들기' 수업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큐레이터와 함께 전시를 구경하고 옛날 전화기(덕물풍) 모양의 LED 램프를 만들어 보는 체험으로, 어린이 60여 명이 참여하였다.



인천의 역사를 품은 책들, 세상에 등장하다

인천시립박물관은 인천 역사를 품은 도서 2종을 발간하였다. 광복 전후부터 인천상륙작전 때까지의 사진 등을 수록한 학술조사 보고서와 인천에서 의사이자 사진작가로 활동한 이종화 선생이 지은 『문학산』을 다룬 소장유물 자료집이 그것이다. 유물관리부에서는 올해도 다양한 인천 역사를 담은 도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인천 서예가들이 송암미술관에 모였다고?

송암미술관은 지난 2월 매주 수요일마다 〈서예를 감상하다〉 특별전 연계 프로그램으로 인천 서예가들과 갤러리 토크를 진행하였다. 특히 2월 28일에는 인천서예협회장, 인천서가협회장, 인천미술협회 서예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인천 서예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참석자들과 함께 마음속에 담고 있던 얘기들을 솔직하게 나누었다.



우리 동네 고고학자는 나야 나!

검단선사박물관은 인천 서북부 지역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굴된 유물을 토대로 만들어진 박물관이다. 박물관은 이러한 특색을 살려 직접 고고학자가 되어 깨진 빗살무늬 토기를 발굴하고 조각조각 이어 붙이는 이색 겨울방학 교육을 진행했다. 1분 만에 교육이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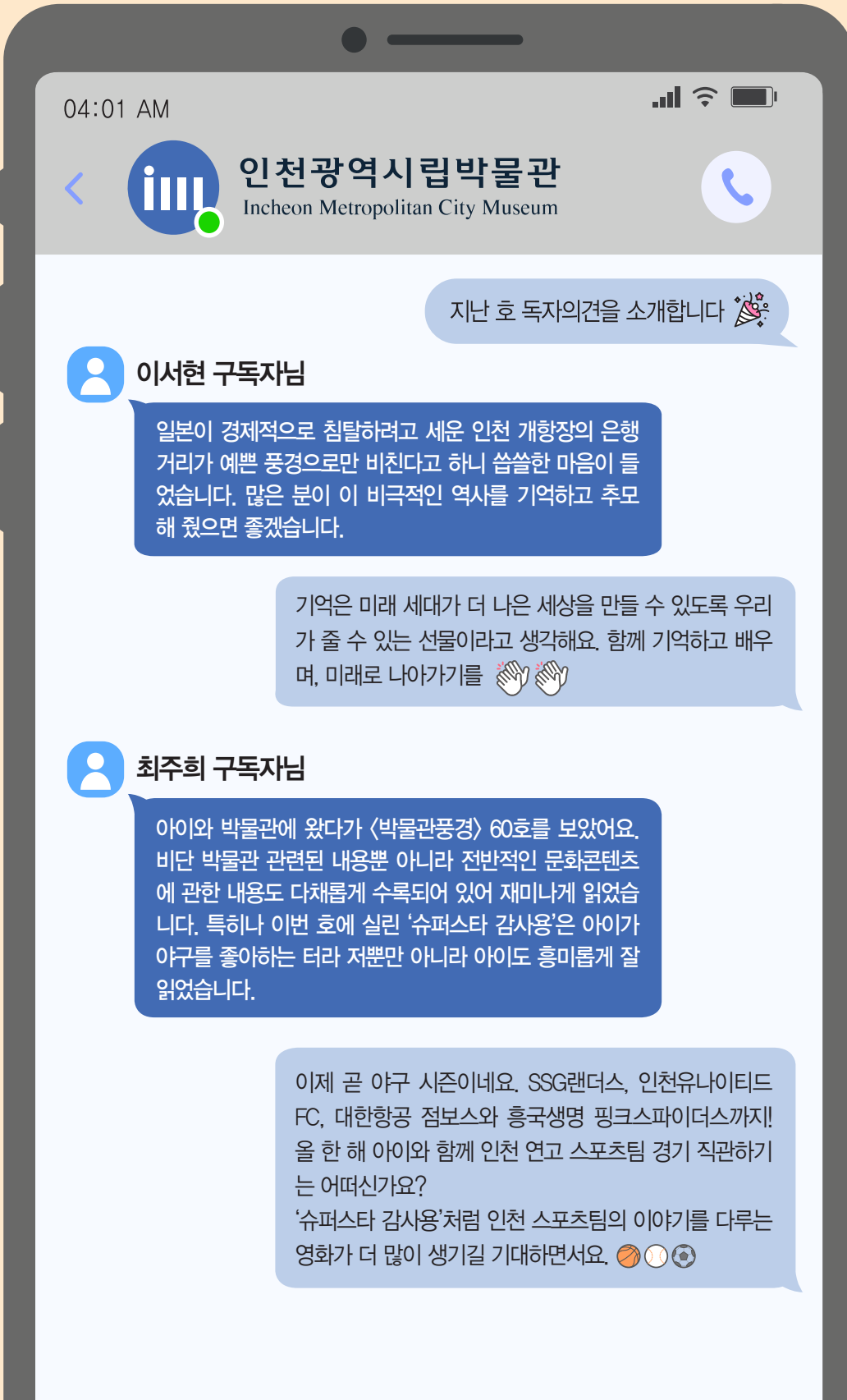
온 가족이 합심해서 네임택을 만들어봐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해외여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한국이민사박물관은 우리나라 첫 공식 이민의 출발지에 있는 박물관으로서, 하와이 이민 과정을 살펴보고 온 가족이 힘을 모아 가족으로 네임택을 만들어보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 교육은 9월까지 월 1회 주말마다 선보일 예정이다.



박물관의 얼굴, 전시해설 자원봉사자 위촉식 개최

인천도시역사관은 2024년도 전시해설 자원봉사자 위촉식을 1월 13일에 진행하였다. 이번 위촉식은 4주간 진행된 양성 교육을 이수하고 시연 평가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진행된 것으로, 총 45명이 위촉되었다. 인천도시역사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인천의 역사를 소개하는 멋진 자원봉사자가 되길 기대한다.



04:01 AM



인천광역시립박물관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지난 호 독자의견을 소개합니다 🎉



이서현 구독자님

일본이 경제적으로 침탈하려고 세운 인천 개항장의 은행 거리가 예쁜 풍경으로만 비친다고 하니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이 이 비극적인 역사를 기억하고 추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은 미래 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억하고 배우며, 미래로 나아가기를 🙌🙌



최주희 구독자님

아이와 박물관에 왔다가 <박물관풍경> 60호를 보았어요. 비단 박물관 관련된 내용뿐 아니라 전반적인 문화콘텐츠에 관한 내용도 다채롭게 수록되어 있어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호에 실린 '슈퍼스타 감사용'은 아이가 야구를 좋아하는 터라 저뿐만 아니라 아이도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이제 곧 야구 시즌이네요. SSG랜더스, 인천유나이티드 FC, 대한항공 점보스와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까지! 올 한 해 아이와 함께 인천 연고 스포츠팀 경기 직관하기는 어떠신가요?
'슈퍼스타 감사용'처럼 인천 스포츠팀의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가 더 많이 생기길 기대하면서요. ⚾🏀⚽

박물관풍경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QR코드를 찍으면 독자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열 분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국민학교와 초등학교, 그 미묘한 차이

추억

누구나 학창 시절이 있지만,
모두가 같은 시절을
보내지는 않았습니 다.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변하는 세월 속에서
사람들의 추억은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인천 신흥국민학교 2학년 1반 동 1972.11.18

국민학교와 초등학교, 그 변화와 의미

글 김대식(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에는 나름의 서사가 담겨 있다.
초등학교라는 명칭도 나름의 서사를 담고 있다. 나는 우리에게 익숙해진 초등학교라는
이름을 낯설게 만듦으로써 그것이 가진 서사를 회상하고자 한다. 이 회상 작업은 현재 우리 교육과 학교,
그리고 교육제도에 대한 성찰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학습자들의 학습을 돕는 학교가 존재해 왔다. 그리고 국가는 이런 학교의 보급과 유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다만, 조선시대까지는 주로 아동보다는 성인 대상의 학교가 국가의 관심사였다. 15세 이상이 된 이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향교, 사학, 성균관 등에서 수학하며 학습할 수 있었다. 그러나 15세 미만 아이들의 경우는 상황이 달랐다. 이들은 가정이나 지역의 서당 등에서 학습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시대 당시 15세 미만 학습자들의 학업 참여는 의무도 아니었고, 개인적 선택 혹은 가족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다.

19세기 말부터 조선의 교육환경에 변화가 나타났다. 서유럽과 미국식 교육이 선교사 등을 통해 조선 사회에 알려지면서, 새로운 교육 제도가 출현하고 있었다. 아이들 대상의 학교 제도와 교육 방식 역시 선교사들에 의해 소개되었다. 인천도 매우 일찍 선교사들에 의해 서구식 초등 교육이 싹트다. 19세기 말 인천 내리교회에서는 영화학당이라는 초등 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아동교육을 진행하였다.

조선 정부 자체의 새로운 교육 체제 도입 노력도 새로운 아동 교육 확대에 이바지하였다. 조선 정부는 소학교(小學校)라는 이름의 초등 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소학교는 새로운 용어처럼 보이지만, 사실 새로운 용어는 아니었다. 조선시대까지는 아동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를 소학(小學)이라 부르는 관행이 있었다. 갑오개혁기 고종 황제는 6년제 소학교를 법제화하고 소학교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후 전국에 소학교가 만들어졌고, 소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학교로 한성사범학교의 설립도 이루어졌다. 소학교라는 용어는 이전의 교육 전통을 계승하면서 근대적 색채를 가미한 표현이었다.

그러나 소학교라는 초등 교육기관의 명칭은 오래가지 못하였

다. 1905년부터 일본제국의 간섭이 노골화하면서, 소학교라는 명칭은 보통학교로 바뀌고 말았다. 이 변화는 단순한 명칭 변경으로 보이기 쉽다. 그러나 보통학교라는 용어는 소학교라는 용어와 다른 의미를 내포하였다. 보통학교는 보통의 교육 곧 누구나 같은 수준의 교육을 뜻하지만, 다른 면으로는 보통학교 이후의 교육은 필요 없다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었다. 소학교라는 표현이 다음 단계의 교육 곧 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에 대한 요구를 함축하는 것과 다른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총독부를 설치해 조선을 강제로 통치하는 상황에서 조선인들의 고등 교육과 중등 교육 기회를 최대한 제한하는 정책을 유지했다. 보통교육 역시 일본 총독부 입장에서는 제한의 대상일 뿐 확대나 지원의 대상이 아니었다. 일본은 보통학교의 교육 기간을 이전보다 축소하는 정책을 펼 정도였다. 통감부 시기 이후 조선의 보통학교 교육 기간은 4년으로 단축되기에 이른다. 그야말로 낮은 수준, 짧은 기간의 보통교육이 일제 교육 당국의 방침이었다.

한편 일본제국은 군국주의를 노골화하면서 조선의 초등 교육 기관 명칭을 일본과 동일한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조선의 보통학교를 일본 초등 교육기관의 명칭과 동일하게 소학교로 변경했던 것이다. 그리고 다시 1941년부터 일본에서 소학교 대신 국민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하자, 총독부는 조선에서도 1943년부터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하였다. 일본과 조선에서 국민학교는 황국신민의 학교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학교 명칭을 일본과 조선이 동일하게 바꾸었지만, 일본과 조선의 초등 교육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일본이 초등 단계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과 달리, 조선에서는 초등 교육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일본은 20세기 초, 초등단



황국신민화 교육을 받는 학생들

©광주광역시청 시청각자료실

계 교육의 의무화가 완성되었지만, 총독부는 1945년까지 조선에서의 초등단계 교육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국민학교로 명칭을 변경해 황국신민의 도를 교육 현장에서 강요하면서도 조선의 학습자들에게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조선의 학습자들은 자비로 황국신민이 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 극적인 변화를 불러온 것이 광복이었다. 광복 후 한국 사회는 새로운 교육을 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미군정 통치 아래 남한에서는 미국식 교육을 참고하면서 새로운 교육을 준비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다른 사회 분야와 마찬가지로 당시 교육계에서도 일제 잔재 청산이 화두가 되었다. 일본의 전체주의 교육과 비교육적 교육에 대한 비판과 극복이 교육관계자들 사이에서 논의되었고, 새로운 교육으로서 민주적·민족적 교육을 표방하는 새교육을 추구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일제강점기까지 제약됐던 교육 기회의 확대가 진행되었다. 해방 후부터 적어도 초등 교육은 의무화한다는 방침이 교육 당국의 핵심 정책이 되었다. 사실 초등 교육의 의무화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교육 원칙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교육에 대한 논의 중에 빠진 잔재가 있었다. 그것은 국민학교라는 초등 교육기관의 명칭이었다. 일제 잔재 청산 속에서 국민학교라는 이름은 잔재로 인식되지 못했던 것이다. 거기에는 국민이라는 표현이 가진 익숙함 탓일지 모른다. 일본은 패

전 후, 초등 교육기관의 명칭을 국민학교에서 소학교로 변경했는데도 말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교육 당국은 학교 명칭 변경보다 교육 기회 확대에 관심을 기울였다. 한국전쟁이 있었음에도 초등단계 교육의 의무화 사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초등단계 교육의 의무화는 일사불란한 국가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1959년에는 취학아동의 국민학교 취학률이 96%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1960년대에도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 등의 교육 투자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학급당 학생 수를 60명 이하로 줄이려는 계획은 쉽게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후에도 교육의 질보다 양, 곧 취학률 증대에 초점을 두는 시대가 계속되었다. 일제 잔재 청산 분위기가 다시 고조된 것은 광복 50주년을 맞으면서였다. 군사정권을 청산하고 출범한 문민정부는 광복 50주년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 차원에서 일제 잔재 청산을 선언하였던 것이다. 일제 잔재 청산의 상징적 이벤트는 조선총독부 건물의 철거였다. 조선총독부는 1995년 당시 경복궁 바로 앞쪽에 위치하여 북한산과 경복궁을 가리고 있었다. 이 건물은 해방 후 한동안 정부 청사로 쓰이기도 하였지만, 문민정부 당시에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정부는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고, 광복 50주년 기념일인 1995년 8월 15일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를 시작했다. 일본과의 관계나 반발을 염려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한국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는 총독부 건물 철거에 찬성하는 것이었다.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정부가 국정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론의 주목을 받은 또 다른 일제 잔재가 있었다. 그것은 국민학교라는 잔재였다. 일상에 너무나 깊숙이 그리고 친숙하게 자리 잡고 있던 국민학교라는 이름에 대해 잊혀진 서사가 부각되었다. 국민이 사실은 황국신민의 줄임말이라는 것, 그리고 해방 후에도 이 이름을 한국 사회가 부지중에 사용하면서 제대로 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교육부는 국민학교 명칭 변경을 결정하고, 국민학교 명칭 변경 공청회를 1995년 4월 20일 오후 4시 서울 YWCA에서 진행했다. 공청회 발제를 맡았던 서울대 신용하 교수는 국민학교 명칭의 대안으로 ①초등학교, ②기초학교, ③어린이학교, ④새싹학교, ⑤소학교를 제시하고 각 명칭의 장단점을 논의했다. 그는 초등학교라는 명칭이 초등 교육, 중등 교육, 고등 교육의 3단계 방식에서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라는 의미와 완전히 합치하는 점을 장점으로 들었다. 한편 소학교라는 명칭에 대해서 본래 갑오개혁기에 사용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전문가도 있었다. 하지만 일제 잔재를 일소하려는 의도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일본에서 사용 중인 표현을 똑같이 사용하면 일제 잔재 청산의 의의가 약화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후 교육부는 일반

인 1,600여 명에게 국민학교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명칭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고, 그중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이름이 초등학교였다.

1995년 8월 11일, 박용식 교육부 장관은 공식적으로 국민학교 명칭 변경을 선언했다. 그는 “일제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라고 국민학교 명칭 변경 목적을 밝혔고 새로운 학교 이름을 초등학교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각 국민학교의 간판, 직인, 교기 교체 사업이 진행되었다. 약 21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거의 30년이 되어간다. 그런데 나는 초등학교라는 이름을 우리 사회가 채택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초등학교 대신 소학교라는 이름을 채택했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근대교육을 시작하면서 처음 사용한 학교 명칭이면서 동시에 조선시대까지 아동교육 전통의 맥을 잇는 표현이지 않은가.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를 통해 우리가 경북 궁이라는 우리의 전통을 부활시켰듯이, 국민학교를 대신하여 조선시대와 근대화의 맥을 잇는 소학교라는 표현을 부활시켰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되었다면, 일제 잔재 청산을 통한 전통의 복원이라는 서사를 초등 교육기관의 명칭에 담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

교육법 개정에 따라
1996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명칭을 공식
사용하게 되었다.

사진은 서울의
창경초등학교에서 진행된
현판식 장면을 찍은 것이다.

©연합뉴스



난 내일부터 초등학교에 다녀요~♡

글 유진(해원초등학교 교사, 동화작가)

이건 할머니가 사주신 책가방이에요. 주머니도 많고 반짝이 가루 장식도 있어요.
이모가 사준 색연필은 32색이나 돼요. 그리고 이걸 오빠가 사준 토끼 모양 지우개.
오빠는 내가 토끼 좋아하는 걸 알거든요. 우리 오빠는 이제 3학년이 돼요.
오빠가 그랬는데, 학교에 가면 규칙을 잘 지켜야 한대요.
“나도 알아. 유치원도 그래. 내가 얼마나 규칙을 잘 지키는데.”
“학교하고 유치원하고 같냐? 훨씬 더 잘해야 해.”
나는 학교에 대해 잘 모르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공부도 많이 해야 해. 교과서가 많거든.”
오빠가 내 턱을 살짝 올려줬어요. 이가 딱 소리를 내며 입이 닫혔어요.
나도 모르게 헤 벌리고 있었나 봐요.

“슬아 이제 자야지. 내일 입학식인데 늦잠 자면 안 돼요.”
엄마예요. 오빠가 눈을 찡긐하며 나갔어요.
“엄마, 학교는 유치원이랑 달라?”
“왜?”
“오빠가 학교는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규칙도 많대.”
“그래서?”
“음..... 무서워?”

엄마가 빙그레 웃으며 내 이마를 쓸어 올렸어요.
“안 무서워. 유치원이랑 비슷해.”
“정말?”
“그럼.”
“우와, 다행이다. 나 이제 잘래.”

물소리에 벌떡 잠에서 깼어요.
“엄마아, 나 오늘 입학식이야!”



가슴이 두근거리서 부엌으로 달려가 엄마 허리를 꼭 붙잡았어요.

잘 잤냐고 엄마가 물을 때 아빠가 나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우리 슬아 일어났어?”

“아빠? 회사 안 가?”

아빠는 회사 가야 해서 아침에 바쁘거든요.

“오늘은 슬아 입학식 보고 늦게 갈 거야.”

“정말? 우와! 엄마, 엄마도 입학식 갈 거지?”

“그럼.”

“오빠! 오빠도 내 입학식에 올 거야?”

오빠가 칫솔을 입에 물고 화장실에서 나오며 우물거렸어요.

“난 너보다 훨씬 일찍 시작해. 우리 교실 가야 돼.”

아, 그렇구나.

“여보, 이것 좀 도와줘요.” 엄마가 아빠를 불렀어요. 아빠가 내게 눈을 찡긐했어요.



나는 깨끗하게 씻고 속옷을 싹 갈아입었어요. 새로 사준 원피스가 입기 싫어서 뽀뽀 안방을 들여다봤어요.

엄마가 진주 장식이 달린 예쁜 옷을 입고 있어요. 자주 안 입는 옷이에요.

아빠도 오늘따라 조끼까지 차려입고 있어요. 나도 새로 산 원피스를 입어야 할 것 같아요.

학교가 새 옷처럼 불편하게 느껴져요.

“엄마, 저 늦었어요. 밥!”

매일 아침 아빠랑 오빠가 야단법석인데, 오늘은 엄마까지 정신이 없어요.

“여보!”

엄마가 또 아빠를 불려요. 오빠는 늦었다면서 재잘재잘 할 얘기가 많아요.

오빠가 후다닥 일어나는데 나는 겨우 한 숟가락 먹었어요.

“동생아, 입학 축하해!”

오빠가 활짝 웃으며 학교에 갔어요. 입학 때문이에요. 초등학교로 간다 생각하니까

밥이 하나도 맛이 없어요. 내가 꼭 남 같아요. 오늘 아침엔 모든 게 달라 보여요.

엄마가 내 머리를 땅으면서 또 아빠를 불려요.

“여보!”

아빠는 꽃다발을 챙기고 아빠 가방과 엄마 가방을 챙겼어요.

“여보!”

아빠가 부엌 정리를 마칠 동안 나도 학교 갈 준비를 마쳤어요.

학교 가는 길에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같은 반 친구들이 좋아야 할 텐데요.”

엄마가 말하자 아빠도 말했어요.

“슬아가 선생님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걱정이 됐어요. 선생님도 친구들도 안 좋을 것만 같아요.

나는 엄마 아빠 손을 꼭 잡았어요.





학교 교문 위에 “입학을 축하합니다.”라고 커다란 글씨가 쓰여 있어요.

“랄랄- 라라라라라- 라라라-.”

교문을 들어서자 바이올린과 첼로를 든 밴드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했어요.

제목은 모르겠는데 많이 들어 본 음악이에요.

떨리는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운동장에 선생님들이 서 있고 반을 알리는 표시가 있어요.

엄마는 그중 2반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나만 두고 뒤로 갔어요.

내 앞에는 허리가 꼳꼳한 선생님이 있었는데,

오빠 말처럼 규칙을 좋아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을 예뻐할 것 같아요.

나는 가슴이 훅 쪼그라들었어요.

코끝이 찡해서 얼른 엄마가 어디 있나 찾아봤어요.

나만 보고 있었는지 엄마 아빠가 손을 높이 흔들었어요.

활짝 웃는 얼굴을 보자 마음이 조금 놓여요.

“어서 오렴, 슬아야. 입학을 축하한다.”

선생님이 내 목에 이름표를 걸어주며 활짝 웃었어요.

선생님이 웃으니까 유치원 선생님과 닮은 것 같아요.

나도 선생님을 따라 배시시 웃었어요.

“입학을 축하해요!”

“환영합니다!”

선생님을 따라 현관으로 들어가자 6학년 언니 오빠들이 길게 늘어서서 박수로 맞아줬어요.

따뜻한 사랑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큰일을 해낸 것처럼 뿌듯해요.

학교까지 걸어온 게 내가 한 일의 전부인데도 말예요.

“멋지고 어여쁜 여러분을 1학년으로 맞이하게 되어 교장선생님은 매우 기쁩니다.”

풍선 장식이 멋진 커다란 강당에서 교장선생님이

학교와 여러 선생님을 소개해 주었어요.

새로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조금 겁이 났어요.

그런데 내 앞에 서 있던 남자애가 조그만 소리로 물었어요.

“넌 이름이 뭐니?”

나는 선생님이 볼까봐 조마조마해서 조그맣게 말해줬어요.

“장슬아야.”

“난 김하운.”

하운이가 씩 웃었어요.

교장선생님이 큰 소리로 “초등학교 입학을 허락합니다.”라고 했어요.

입학식이 끝나자 선생님은 우리를 교실로 데려갔어요.

나는 선생님을 놓칠까봐 조마조마한데 하운이가 또 말을 걸었지 뭐예요.

“너 어디 살아?”

“바다아파트. 선생님 놓치겠어. 앞에 봐봐, 얼른.”

“어? 난 그 옆에 옆에 빛나라 아파트 사는데.”

하운이가 활짝 웃으며 뛰어갔어요. 걱정 하나 없이요.

나도 갑자기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나도 하운이를 따라 종종종 뛰어갔어요.



1학년 2반 교실에 들어가자 선생님이 자리를 알려주었어요. 내 자리는 1분단 창가 자리예요.
책가방을 내려놓자 목적지에 다 온 것처럼 마음이 놓여요.

“내일도 잊지 말고 우리 교실 자기 자리에 와서 앉습니다.”

“네!”

선생님이 우리가 써야 할 화장실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을 때예요.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어요.

‘누가 오줌 싸러 안 가나?’

아무도 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나 봐요. 나만 못 참는 것 같아서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이러다가는 자리에 오줌을 쌀 것 같아요.

그건 정말 부끄러운데요. 참다 참다 선생님을 불렀어요.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선생님도 친구들도 모두 나를 봤어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차라리 앉은 자리에 오줌을 싸는 게 낫겠어요. 창피해서 눈물이 나려 해요.

“선생님, 저도요.”

하운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우와, 나 혼자가 아니예요!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며 나와 하운이에게 화장실을 가리켜 주었어요.

나는 화장실에서 나와 하운이를 기다렸어요.

“너랑 같은 반이라서 좋아.”

하운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하운이랑 나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나는 하운이랑 손을 잡고 교실로 돌아왔어요. 교실에서 유치원에서랑 같은 소리가 들려요.

친구들이 떠드는 소리요. 학교 교실은 유치원보다 크고 책상도 많아요. 마룻바닥도 아니고 장난감도 별로 없어요.

유치원이랑 많이 다른데 떠드는 소리를 들으니깐 내가 아는 익숙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헤헤, 학교가 좋아질 것 같아요.

공부가 금방 끝났어요.

선생님이 우리를 다시 운동장으로 데리고 나오자 엄마 아빠들이 우리를 빙 둘러썸어요.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우리는 선생님께 씩씩하게 인사를 했어요.


“학교 어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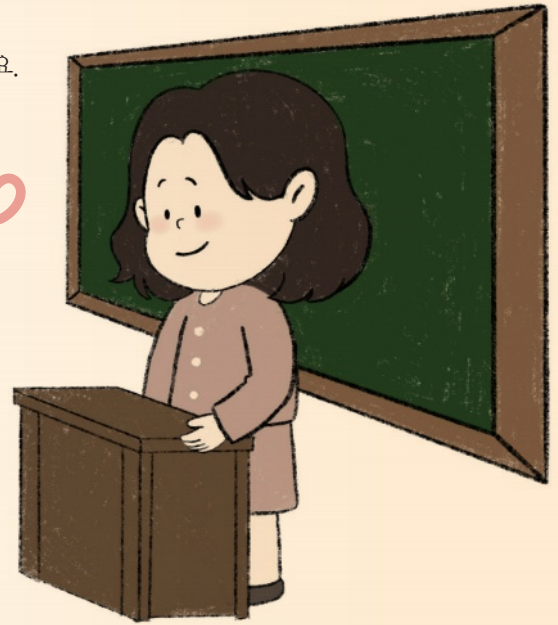
“친구들은?”

“선생님은? 좋아?”

갑자기 운동장이 시끌벅적해졌어요.

양쪽에 엄마 아빠 손을 잡은 나는 발이 땅에서 뽕뽕 뜨는 것 같아요.

나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재잘재잘 떠들었어요. 자꾸자꾸 말하고 싶어요. 



입학축하

지금까지 요즘 입학식 모습을 동화로 살펴봤는데요,
나의 입학식과 무엇이 같고, 다른지 생각해 보세요!



1960 ~ 1970년대 란도셀



1970년대 후반 사철펙



2000년대 캐릭터 백팩

책가방



코를 닦는 거즈 손수건과 천으로 만든 이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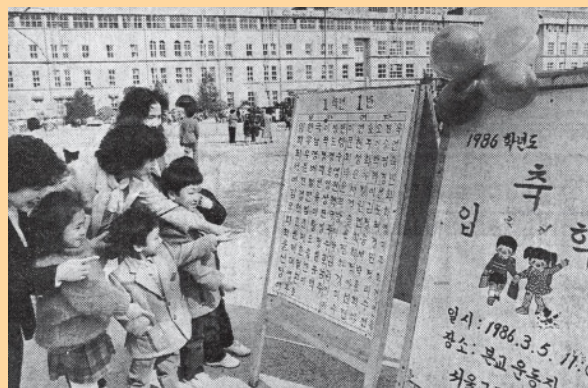


종이 이름표

이름표



1954년



1986년

입학식

교실의 변화는 이제부터다

글 이시경(한밭교육박물관 학예사)





“어? 학교 같다!” 1938년 지어진 학교 건물에서 운영 중인 한발교육박물관에 들어선 아이들의 첫 마디다. 이 건물은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덕분에 다른 근대건축물과 달리 건물의 외부는 물론 내부 구조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 때문에 박물관을 방문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별다른 사전 정보가 없어도 박물관이 학교 같다고 느낀다. 21세기 학생들이 약 100년 전 학교 건물을 보면서 자신이 다니는 학교와 같다고 느낀다는 것은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의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앨빈 토플러의 오랜 지적을 여전히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남쪽을 향한 건물 배치와 사각형 교실, 앞뒤 출입문, 창호 마지막 편복도로 구성한 학교 공간 구조는 이처럼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특히 1962년 문교부 만든 「학교 교사 표준설계도」가 1980년대까지 이어지면서 이러한 학교 건축의 평면은 더욱 굳어졌다.



학급당 기준면적은 복도를 포함하여 90평방미터 이상으로 한다.

1967년 정부가 제정한 「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5조(교사)에서 규정한 ‘보통 교실’의 면적 기준이다. 1979년 개정에서 면적 기준을 복도를 뺀 실면적으로 하면서 66㎡로 바꾸었고, 이후 이 면적은 1997년 이 기준령이 폐지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결국 표준설계도와 이 기준령에 따라 전국의 학교들이 획일적인 모양과 면적으로 지어졌다. 기준령이 폐지된 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1997년 9월 제정)에 따라 면적 기준은 학생 1인당 최소 면적으로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으나 사실상 66㎡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2023년 기준 66㎡의 교실에서 생활하는 학생 수는 전국 평균 21명이다. OECD 평균은 20.3명이고 사회 각계에서도 20명을 상한선으로 요구하고 있다. 초등학교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대로 떨어진 것은 2008년 통계자료에 처음 기록되었다. 그 이전에는 1960~70년대는 50~60명, 1980~90년대에는 40~50명, 2000년 초중반까지는 30명대였다. 같은 면적에서 지금의 3배 가까운 학생 들어앉아 있어야 했다.

이렇게 밀집하였음에도 교실은 부족하여 오전·오후반이라 불렀던 2부제 수업 혹은 3부제 수업까지 해야 했다. 2부제 수업은 베이비붐세대가 입학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예코 세대가 학교에 다니던 199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2부제 수업은 결국 학교 신설, 교실 증축이 해소 방안이었는데, 서울시는

1980년대에 도시기본계획에 2000년까지 국민학교의 2부제 수업을 전면 해소를 넣기도 했으며, 교육부 역시 1995년 교육재정이 1998년까지 GNP 대비 5% 수준으로 향상되자 학교 신설로 2부제 수업을 없애고자 하였다. 교육통계에서 2부제 수업 시행 학급조사 결과는 2002년까지 확인된다. 시대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 사회에서 2부제 수업이 사라진 것이 그렇게 오래전 일은 아닌 셈이다.

교수·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의 내부 환경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997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제정하면서 교실 환경에 기준을 규정하였다. 법령을 통해 교실 실내 환경 기준을 처음으로 정한 것인데, 온도 18℃ 이상, 조도(책상면) 300룩스 이상, 소음 55데시벨 이하였다. 교실 온도를 18℃ 이상으로 하려면 여름 겨울 냉난방기가 필수적이겠는데, 1990년대 후반까지도 신문에는 학생들이 여름에는 찜통 속에 있고 겨울에는 덜덜 떨고 있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국정감사 결과 우리나라 초·중·고교 교실 가운데 난방시설이 안 된 곳이 18%에 이른다는 것이 드러났다. (...) 난방시설이 된 곳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른바 난방시설이 됐다는 교실 가운데 11%인 33,578개 교실은 아직도 연탄난로 등 석탄을 연료로 개별난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감사로 본 1997년 대한민국(2), 초·중·고 교실 18% 난방 안 돼 추위 속 수업」, 『한겨레』 1997. 10. 4.)

불과 30년도 되지 않는 시기까지 교실 냉난방 여건은 열악하였던 것인데, 더욱이 40~50명의 한 학급 학생이 벽면에 달린 선풍기 2대로 여름철 무더위를 버티는 광경은 상상 속에서도 끔찍하겠다. 이런 끔찍한 상황은 현재 초·중등 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학창 시절 때인데 교실 면적이나 책걸상 배치에서는 크게 세대 차이를 못 느낄지라도 전원 버튼 하나로 냉난방을 하는 점에서는 큰 차이를 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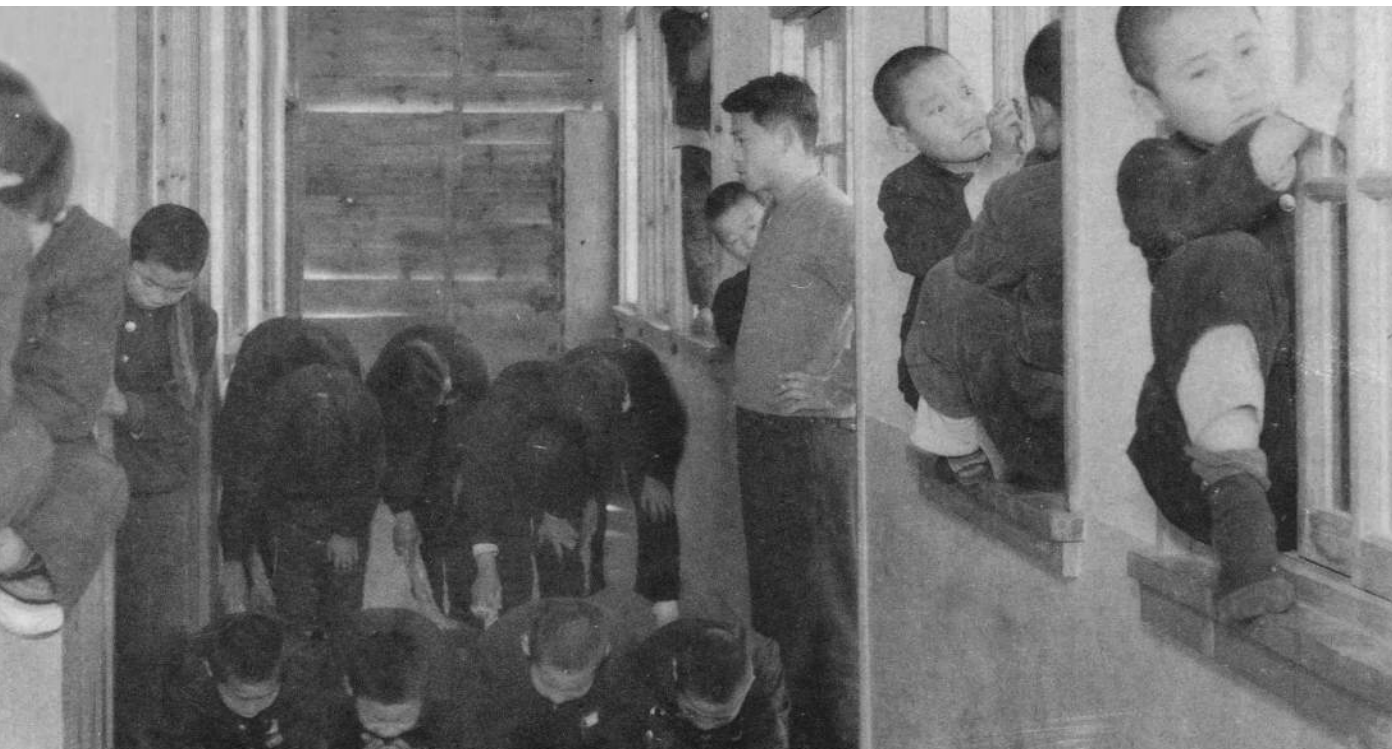
교실에서 난로는 나무에서 왕겨탄, 조개탄, 석탄으로 연료가 바꼈지만, 2000년 이후로 점차 사라지고 전기 난방기로 교체돼 온 것으로 보인다. 냉방기 역시 정부가 이때부터 본격적인 냉난방시설 개선 사업 시작하여 설치되었다. 2002년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교사 안의 환경위생에 관한 기준을 강화한 영향도 있는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으로 이동하며 실내 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 온도는 18℃ 이상 20℃ 이하, 냉방 온도는 26℃ 이상 28℃ 이하로 규정하였다. 이 기준은 2024년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다.

이 같은 법령 개정과 정부의 냉난방기 개선 사업에도 여름 겨울철 교실의 냉난방 환경은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다. 2006~7

년까지도 냉방기 설치는 전체 교실의 62%, 초등학교는 53%에 불과하여 여름이 되면 여전히 찜통 교실이라는 기사가 등장하기도 했으며 난방 역시 벽, 지붕의 단열과 창호의 성능 또는 노후화 등으로 열 손실이 발생하여 냉장고 교실이라는 기사가 2010년대까지 찾아진다. 여기에 전기요금 문제까지 더해지며 교실 속 냉난방 시설만 바뀌었을 뿐 학생들의 체감은 나아지지 않았다.

흑판에서 스마트 전자칠판으로

칠판은 교실 환경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교구의 하나로 19세기부터 사용하였다. 우리나라도 개화기 학교 사진 속에서 칠판 사용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색깔 때문에 흑판(Black Board)으로도 불리다 제조 방법이 칠판에 녹색을 입히는 방식으로 바뀌며 지금과 가장 익숙한 모습으로 기억에 남아 있다. 학교당 교실의 칠판 개수는 1965년부터 1989년까지 주요 교구 또는 시청각 기재로 분류되어 매년 조사하는 대상이었다. 또한 교육 방법 및 효과는 논외로 하더라도 칠판은 교사와 학생에게 중요한 수단이었음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칠판의 변화는 늦었다. 1995년 5월 정부의 교육개혁이 ‘세계화, 정보화,



1961년 대전 성남국민학교 졸업앨범 사진, 청소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 한밭교육박물관



1968년 인천산곡국민학교 졸업앨범에 실린 수업 모습이다.

다원화'를 표방하며 컴퓨터 교육 및 교구를 대대적으로 도입하여 칠판 없는 교실을 만들어갔다. 이로 컴퓨터 모니터나 전자 칠판이 그동안의 칠판을 대신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줄속 도입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됐지만 판서 중심의 교육 문제, 칠판 청소, 분필 가루로 교사의 건강 문제 등은 사라지게 되었다. 교실의 앞쪽을 차지한 모습은 시대가 지나도 변함없지만, 검정 또는 녹색의 칠판과 분필을 대신한 스마트 전자칠판이 자리하며 각종 미디어 자료 등을 활용한 다양한 수업을 실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교실 청소, 안전과 교육적 문제까지


학창 시절은 학습뿐 아니라 다양한 추억을 남겨주었다. 그중 책걸상을 뒤로 밀고 줄지어 손걸레를 들고 쫓그려 앉아 선생님이 뿌리는 왁스나 기름을 문질렀던 교실 바닥 청소와 교실과 복도 창호에 매달려 호호 불며 닦았던 유리창 청소도 잊히지 않는 추억거리이다.

1981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리창 청소를 하다 추락한 것이다. 이 사고가 처음도 아니었으나 큰 사회적 이슈가 되며 고층 유리는 청소부 고용을 지시했지만, 경비 문제로 학생들이 계속하는 학교도 많았고 같은 사고가 반복되었다. 꼭 유리창 청소 사고만이 아니더라도 서울시의 1989년 3월부터 1990년 2월 말까지 학교 안전사고

조사에 따르면 교실 청소 중 사고는 108건(6.2%)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1990년대 초등학교는 학부모의 교실 청소가 또 다른 문제로 등장했다. 특히 1학년을 중심으로 학부모들이 당번을 정하여 교실 청소를 해야 했다. 1학년이 청소가 서툴고 안전 문제가 있어 기존에는 5·6학년 고학년이 했으나 이 역시 문제가 되며 학부모 청소 당번이 생기게 된 것이다. 예상하듯 학부모 청소는 교육적 문제와 나아가 촌지 문제까지 번지기도 했다. 반면 시간이 지나면서는 초등교육의 학부모 참여로 변화하여 급식 배식은 사라지고, 여전히 등굣길 교통지도 활동만 남아 있다.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학교 교육을 혁신하겠습니다.

2019년 교육부는 미래 교육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였다. 그중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획일적인 학교 공간인 교실과 복도를 사용자 중심의 공간, 디지털 학습에 적합한 공간으로 바꾸기 시작했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천장의 석면과 냉난방기 교체도 계속한다. 또한 지난 12월에는 2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학교 교실 환경은 교육 내용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한 점이 많았다. 어쩌면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기대해 볼 만하겠다. 



이토록 뜨개에 진심, '땡스' 대표 신미하

글 정미리(편집위원) 사진 임해승(편집위원)



땡스웍스

official.thnx

듣고 싶은 음악을 고르고 마음에 드는 향기를 선택한다.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신다. 기분이 절로 좋아지는 이곳은 카페가 아니라 신미하 대표가 운영하는 뜨개 클래스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다. “다들 이곳에 쉬러 오신 거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향기와 음악과 함께 뜨개를 한다면 기분이 더 좋을 테니까요.” 가장 먼저 신청곡부터 받는다는 그는 뜨개를 통해 사람들이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이 목표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신미하 씨는 뜨개야말로 관대한 취미라고 소개한다. “수업 때마다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하다가 틀려도 괜찮다고요. 뜨개는 되돌릴 수 있거든요. 풀고 다시 하면 되니까. 원하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관대한 취미예요.” 장비 역시 다른 취미에 비해 간소한 편이다. 실과 바늘이 유일한 장비이기 때문에 경제적이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누구든지 큰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 또 코스터나 컵홀더 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 수 있어 실용적이며, 머릿속에 있는 모양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의적이다.

그는 이러한 뜨개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대중적인 취미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다. ‘바늘과 친해지기’ 등 뜨개 입문자를 위한 원데이 클래스는 그 일환 중 하나다. 뜨개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초보자 대상 수업으로 뜨개에 필요한 모든 장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 바늘 잡는 법부터 차근차근 배운다. 여기에는 수강생들이 원하는 음악과 향기, 따뜻한 음료도 함께한다. 좋은 기분을 느끼며 뜨개질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미하 씨가 준비한 일종의 ‘세팅’이다. 실은 부드럽고 톡톡한 질감의 ‘촉감실’로 만지면 만질수록 기분이 좋아진다.

뜨개를 완성한 후 느끼는 뿌듯함보다 뜨개를 하는 그 순간의 행복이 더 중요하기에 그는 실 선택에도 신중을 기했다. 제한된 시간 안에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부담감도 없다. 제한된 시간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종료 시각을 정해두지 않고 완성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는 말했다. 한번은 반나절이 걸려 완성한 사람도 있었다고.

‘코바늘 세트’는 뜨개 대중화를 위해 그가 아심 차게 내놓은 물건이다. 뜨개바늘 중 소위 ‘고급’으로 여겨지는 바늘은 개당 1~2만 원 정도로 크기별로 갖춘다 치면 십만 원이 훌쩍 넘어버린다. 그는 이러한 비용적 부담이 뜨개를 시작하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이라 그는 생각했고, 합리적인 가격의 ‘코바늘 세트’를 내놓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굳이 값비싼 바늘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잘 떠질 순 있겠지만, 입문자로서 비용이 부담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뜨개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을까 고민하다 중국에서 직접 바늘을 수입하기로 했어요. 각각 다른 크기의 바늘 열두 개를 하나의 케이스에 담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선보일 수 있었죠.”



∴ 부드럽고 톡톡한 질감으로 만질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땡스의 촉감실


뜨다 보면 풀려요

신미하 씨는 오랜 기간 브랜드 관련업에 종사했다. 브랜드 이름을 짓는 것부터 상품 기획, 마케팅, 컨설팅까지 다양한 회사에서 크고 작은 경험을 쌓았고 이는 지금의 '땡스'를 운영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직종이기 때문에 머릿속이 늘 복잡했어요. 쉬는 날도 거의 없었고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뜨개를 하고 계시길래 호기심에 따라 해봤어요. 단순한 활동임에도 생각이 정리되면서 서서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직장에 다니면서 '땡스웍스'를 설립한 그는 온라인 사이트 및 오프라인 스튜디오를 열어 자기 브랜드를 키워나간다. 현재 땡스는 '마인드 피트니스' 관점에서 뜨개를 바라본다. 뜨는 과정을 통해 몰입과 회복, 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에 걸맞은 도구와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



∴ 다양한 크기의 코바늘 12종을 한 박스에 담은 땡스의 코바늘 세트

인천에서 태어난 신미하 씨는 현재 제물포에 사무실을 두고 인천을 주 활동 무대로 사업을 펼치는 중이다. 2022년 12월에는 개항로에 있는 '개항백화'에 입점해 인천 시민과의 교류를 본격화했고, 뜨개 클래스는 물론 '개항로 맥주', '포디움 126' 등 로컬 브랜드와 협업해 뜨개를 접목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와 인터뷰한 날은 그가 개항백화에서 딱 1년을 채우고 나가는 날이었다. “이곳에 있으면서 인천에 맛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특히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서로 의지할 수 있었죠. 저라는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또한 이곳에 있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는 올해 인천에서 나아가 활동 반경을 더욱 넓힐 계획이다. 많은 사람이 뜨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직장인을 타깃으로 삼아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활동을 고려 중이라고. 남자가 뜨개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회, 어딜 가든 뜨개질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사회를 꿈꾸는 그는 오늘도 실과 바늘을 챙기고 사람들을 만나러 나간다. “저는 뜨개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뜨개에 조예가 깊은 사람도 아니에요. 단지 취미로서 뜨개를 즐기는 '뜨개 애호가'일 뿐이죠. 다만, 저로 인해 많은 분이 뜨개를 접해보고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thnx.



뜨개는 관대한 취미예요,
하다가 잘 안되면 다시 풀어서 하면 되거든요,
언제든 되돌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관대해요.

인천기자수첩

제 5 호 글 · 사진 노승환(MBN 기자)

2024년 3월 10일 일요일

너의 낭만을 위로하는 나의 고백

— 인천의 어떤 보도블록은 무슨 말을 하고 있나 —



▲ 진입 방지봉에 청테이프가 감겨 있고 옆에 경계석 더미가 쌓인 인주대로623번길의 한 인도

열등감이었나 싶었다. 한 칼럼 때문이었다. 고선영 콘텐츠그룹 ‘제주상회’ 대표의 글은 ‘서울을 따라 하지 않는다’고 시작했다. 인천 구도심 쓰러짐의 부활을 모색하는 이창길 대표에 관한 얘기였다. 글은 그가 ‘서울 콤플렉스 따위에서 벗어나...’

독창성을 획득했다고 경애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글의 내용을 떠나 열등감이란 말이 번쩍하고 들이닥쳤다. 이 글을 한창 쓸 때 그 칼럼을 읽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인천시청 앞 어떤 인도에 관한 얘기다. 뒤늦게 글을 쓰던 내 마음이

열등감이었나 싶었다. 인천의 어떤 지지분한 인도를 서울과 비교한 탓이다. 초고를 읽어준 어떤 이도 말했다. 열등감이란 말은 안 썼으나 공감하기 어려운 대목이 여럿 있었다 했다.

두 사람 덕에 초고를 다 지웠다. 열등감은 자칫 같은 크기로 우월감을 데리고 다닌다. 과장하고 단정한다. 초고를 다시 읽으니 과연 그랬다. 어쩐다.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썼다.

뺨 맞은 운치

그 인도는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623번길 250m가량이다. 인천시 공무원과 주변 회사원들이 잘 가는 식당과 카페가 줄지어 있다. 예전엔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몇 년 전부터 인천시청 앞에서 사람이 가장 붐비는 길이다. 양옆 키 큰 가로수들이 길게 늘어서 운치가 꽤 좋다. ‘내 마음의 옥탑방(박상우 소설, 1999)’ 마냥 오랫동안 이 길은 ‘내 마음의 가로수길’이었다. 하지만 시선을 발치로 내리면 기분이 늘 좋지 않았다.

지난 1월, 며칠에 걸쳐 이 길을 새삼 다시 관찰했다. 어떤 가로수 밑동은 보도블록과 밑동 사이에 경계석이 어떤 일인지 아래쪽에만 박혀 있었다. 만들다 말았을까. 주변엔 담배꽂이가 널려 있었다. 다른 가로수들도 상태가 비슷비슷했다. 경계석이 없거나 있어도 깨지거나 빼돌빼돌했다. 그 가로수들 주변 보도블록들은 변색인지 불량인지 서로 색이 달라 이빨 빠진 듯 보이는 곳이 여러 군데였다. 근사한 가로수의 운치가 뺨을 맞고 있었다.

어떤 차량 진입 방지봉은 청테이프가 지지분하게 감겨 있었다. 주변엔 왜 그런지 깨진 경계석 몇 개가 모여 있었다. 근처 인도 경계석은 깨지거나 여러 곳 금이 갔다. 어떤 곳은 보도블록들이 줄지어 깨져 있고 어떤 곳은 땅 밑이 주저앉았는지 대각선으로 10m가량 움푹 꺼졌다. 탄 데 보고 걷다 헛디디기 딱

좋아 보인다. 언제 심었는지 모를 벤치들은 시커먼 때가 끼어 만지니 끈적했고 앉자니 찝찝했다. 이 길의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이런 모습이다.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여길 걸어 다닌 지 20년쯤 됐다. 다 기억나진 않아도 그 세월이 길은 대체로 그랬다. 그럴 때마다 난 자꾸 서울 광화문이 떠올랐다. 지난해 11월과 12월, 광화문 일대에서 본 몇 장면을 참고삼아 적어본다.

서울 광화문 앞 문화체육관광부 앞을 걸을 때였다. 가로수 하나가 눈에 들었다. 보도블록과 가로수를 구분하는 테두리블록이 사방으로 가지런했다. 주변엔 일정한 패턴으로 큼직한 보도블록이 말끔하게 도열해있었다. 주관적 감상이지만 전체적인 모양이 단조롭지 않고 아름답다고 느꼈다. 그리고 깨끗했다. 가로수 밑동, 가로·세로 1m 정도인 좁은 곳에 큰 돌 네 덩이가 박혀 있었다. 자세히 보니 누군가 공들여 깎고 다듬었다.



INCHEON

(인주대로623번길)



가로수와 보도블록 사이 경계석이 제대로 없고 지저분한 가로수



맨홀 주변이 지저분하게 마감된 인도



인주대로 623번길에선 이렇게 깨진 채 방치된
보도블록을 쉽게 볼 수 있다.

맨홀을 다루는 방법도 달라 보였다. 광화문에서 멀지 않은 종로구 공평동의 한 맨홀 주변은 맨홀이 보도블록을 '잘라먹지' 않게 회반죽을 넓게 넣었다. 나중에 보수공사를 해도 회반죽 부분만 다시 메우면 될 것 같았다. 그 앞 보도블록들은 길의 형태에 따라 사선으로 정교하게 절단돼 심어졌다. 인주대로623번길은 달랐다. 아마 맨홀 보수공사를 했는지 맨홀 주변 보도블록을 잘라내고 회반죽이 덧칠하듯 마감돼 있었다. 회반죽과 주변 보도블록 사이 경계는 삐뚤빼뚤했다. 지저분했다.

인주대로623번길과 광화문 일대를 관할하는 두 구청에 문의하고서 이 차이가 뭔지 가늠할 수 있었다. 광화문 일대를 관할하는 구청 담당자는 “성질이 무른 콘크리트나 점토 보도블록은 쓰지 않습니다. 쉽게 망가져요. 3~4배 비싸도 돌만 씁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도와 보도블록의 디자인은 도시 디자인 담당 부서에서 별도로 궁리한다고 했다. 보도블록이 깨졌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최대한 빨리 교체하고 신고가 없어도 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 파손된 곳이 없나 ‘순찰’한다고 했다.

인천 관할 구청의 설명은 달랐다. 인도와 보도블록의 디자인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고 했다. 혹시 인천시에 있을지 해서 도시 디자인 관련 부서에 문의했더니 건축허가 때 건물 외관은 심의하지만, 인도와 보도블록 디자인은 따로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구청은 파손 신고가 들어오면 교체는 한다고 했지만 파손된 데가 있나 미리 순찰까진 안 한다고 했다.

글을 쓰려고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보도블록은 하나의 언어 같았다. 2001년 9·11 테러로 사라진 뉴욕 쌍둥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물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아니었으나 세계 경제의 지휘부라는 이미지로서 하나의 언어였던 것 같다. 광화문 광장이 맨 앞에 이순신 장군을, 다음에 세종대왕을, 마지막으로 경복궁을 세워둔 형태도 그렇다. 하나의 언어로 불만한 그 배치는 마음에 썩 들진 않지만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지켜왔고 한글로서 시대


정신을 삼은 어떤 나라'

인천시청 앞의 어떤 인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 지저분한 인도는 잘 먹고 잘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약간의 뻔뻔함, 서울 아닌 다른 도시들도 다 그렇게 하고 산다는 하나의 상투, 오랫동안 쓸고 닦지 않은 방을 방치하는 것 같은 어떤 무기력, 사소한 것이라는 이유로 살뜰하게 살피지 않는 여유 없음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아마 이 길이 인천에 처음 온 이의 첫 인천이라면 그 언어는 분명 통명스럽게 들릴 것 같다.

마침내 너의 낭만이 되기를

인천이 다 후지진 않을 것이고 서울이라고 다 고급질 리 없을 것이다. 이 글은 그저 인주대로623번길, 뽕 맛은 운치를 위로하는 애잔함이다.

열등감이었음을 인정해야겠다. 오랫동안 서울이 부러웠다. 동경이 뭐 나쁠까. 문제는 긴장하지 않을 때 동전의 양면처럼 동경과 멸시가 서로 달라붙는다는 점이다. 흰 피부 백인을 동경하는 마음은 종종 검은 피부 흑인을 멸시하는 마음을 낳는다. 나도 그랬던 것 같다. 인천에서 평생을 살고 인천을 사랑하지만, 전적으로 긍정할 순 없었다.

그래서 이 글은 논평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고백이 됐다. 방 송국 보도국장을 지낸 권석천 씨의 책 『사람에 대한 예의』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나는 당신이 ‘나도 별수 없구나’에서 시작하길 바란다.” ‘별수 없구나’ 다음엔 보통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것 같다. 냉소하거나 다시 시작하거나. 냉소는 손쉬운 선택이다. 난 이제 그러지 않으려 애쓸 수 있게 됐다. 그러니 내 마음의 가로수길, 너는 마침내 너의 낭만이 되길 바란다. 

SEOUL



경계석이 온전하고 흙 속에 큰 바위가 다듬어져 박혀 있는 광화문 가로수



맨홀 주변 보도블록 절단면에 일체 빈틈이 없는 공평동의 한 인도



인천시청 앞이 이렇게 튼튼하면서도 보기에 아름다운 길로 '뒤덮일' 날이 올까.

도시에 살아남은 사람살이의 오랜 흔적, 인천의 큰 나무

글·사진 고규홍 (나무 칼럼니스트)

하늘이 베푸는 만큼만 먹고 살던 농경문화 시절, 사람은 모든 소원을 하늘에 빌었다. 비를 내려달라고 빌었고, 햇볕을 쬌어달라고 또 빌었다. 사람의 생살여탈권이 온전히 하늘에 달렸다고 믿었던 시절이다. 그러나 사람의 애절한 소원을 들어야 할 하늘이 너무 멀었다. 낮 놓고 하늘만 바라보던 그 순간 하늘을 머리에 이고 높이거니 솟아오른 생명체가 사람의 눈에 들어왔다. 나무였다.

나무는 사람의 모든 소원을 다 담을 만큼 큰 몸피를 갖추었고, 그 끝은 하늘에 닿아 있었다. 사람들은 나무에 다가섰다. 나무에게 우리의 소원을 하늘에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간곡했다. 하나둘 사람들이 나무 앞에 모였다. 함께 정성을 다해 소원을 빌었다. 나무는 사람과 하늘을 잇는 영매였다. 사람들은 그를 ‘당산나무’라고 불렀고, 정성을 다하는 모임은 ‘당산제’라 불렀다.

나무 숭배는 우리 민족에게만 있던 남다른 일이 아니다. 종교 인류학의 걸작인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 경의 『황금가지』에는 고대로부터 이어온 ‘나무 숭배’의 흔적이 다양하게 소개돼 있다. 주로 유럽과 남미 쪽의 나무 숭배 형태를 지루할 정도로 다양하게 소개한 이 책에 등장한 숱한 사례 가운데에는 다소 괴이쩍은 사례도 있다.

고대 게르만족의 이야기다. 나무껍질을 벗긴 자에게 행하는 징벌을 당시의 법으로 규정한 경우다. “범인의 배꼽을 도려내고는 그 배꼽 자리와 껍질이 벗겨진 나무 부위가 서로 맞닿도록 못질할” 하는 게 징벌의 시작이다. 나무줄기의 껍질을 벗겨 낸다는 것은 나무의 생명에 치

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당시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알았던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사람의 배꼽을 나무에 못질한 뒤에는 범인의 배에서 창자를 꼬집어내는 것으로 이어진다. “범인의 창자가 모두 나무에 감겨질 때까지 나무 주위를 빙글빙글 돌려 감는 것”이다. 점잖은 자리에서라면 함부로 옮겨 담기에도 징그러운 처사다.


나무를 신적인 존재로 여긴 사례는 더 많다. 스웨덴 민족은 읍살라 숲에 있는 모든 나무를 신으로 간주했고, 기독교 개종 전의 리투아니아인들은 큰 나무를 신으로 숭배하면서 그에게 신탁을 청하기도 했다. 당연히 나뭇가지 하나만 꺾어도 큰 죄가 된다고 믿었으며, 나뭇가지를 꺾은 사람은 급사를 맞아 죽음에 들거나 나뭇가지를 꺾은 손이 부러진다고 생각했다. 또 크로아티아의 달마티아 지역에서도 거목을 베어내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거나 평생 병을 달고 살게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우리의 오래된 나무에 전하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는 이야기들이다. 나무 숭배는 모든 인류의 생존 조건이었고, 호모사피엔스 문화의 일종의 원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설 혹은 신화가 모두 사라진 이 시대’에도 나무 숭배는 현대적 변용의 형태로 이어진다. ‘나무 보호’가 그것이다. 우리도 여전히 나무를 극진히 보호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에서부터 지자체나 마을, 혹은 사회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보호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이 있다.

▲대동제를 이야기며 도시의 마을 살림살이를 지켜온 보호수 ‘청학동 느티나무’

보호수의 경우 월등히 많은 상황은 아니다. 서울·부산·대구를 제외하면 많은 편에 속한다.
보호수 지정 결과의 의미를 짚어보려면 몇 가지 변수 특히
그 지역의 면적을 살펴야 한다.
면적이 넓으면 크고 오래된 나무가
더 많이 존재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의 면적은 국토교통부의
『지적통계연보』*를 바탕으로
한 2022년의
국토 현황에 따르면
총 1,067km²가 된다.





전국의 광역시 가운데에는 최근 군위군과 통합한 대구광역시 제외하면 가장 넓은 규모다. 광주(501.0km²)의 두 배가 넘는다. 그러나 인천은 부속 도서인 옹진군 강화군 영종도를 제외하면 사실 300km²를 살짝 넘기는 정도로, 이는 광역시 가운데에 가장 작은 세종시(464.9km²)보다 작다. 게다가 인천은 간척지를 넓혀가면서 면적을 늘려 왔기에, 오래된 나무가 많을 수 없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치러왔다는 역사적 사실까지 고려하면 더 그렇다.

인천시의 보호수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느티나무 58그루, 은행나무 21그루, 소나무 10그루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이어서 팽나무 · 향나무 · 회화나무가 제각기 6그루, 산수유 2그루, 단풍나무 · 물푸레나무 · 상수리나무 · 음나무 · 팔배나무 · 양버즘나무 · 곰솔이 각각 1그루씩 있다. 나무 나이별로 살펴보면 900년 넘는 나무가 2그루이며, 700년대(700~799년)가

4그루, 600년대가 13그루, 500년대가 12그루, 400년대가 13그루, 300년대가 24그루, 200년대가 34그루, 100년대가 14그루다. 100년대 정도라면 그리 보호할 가치가 높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천의 100년대 나무 가운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도 있다. 중구 자유공원 구역 내에 서 있는 양버즘나무가 그렇다. 가장 오래된 나무로는 무려 1천 년에 달하는 강화 고능리 은행나무가 기록돼 있다.

인천의 보호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화군 69건, 서구 13건, 옹진군 11건, 연수구 8건, 남동구 7건, 중구 4건, 계양구 3건, 미추홀구 1건으로 분포돼 있다. 고려 때부터 왕실의 역사적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강화군에 가장 많은 보호수가 지정된 건 당연한 일이다.

인천광역시는 천연기념물, 지방기념물, 보호수로 지정한 아름다운 큰 나무가 풍성한 상황이다. 그러나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도심 구역의 사정은 사뭇 다르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도심 구역만을 따로 떼어 보면 천연기념물 2건, 지방기념물 1건, 보호수도 고작 36건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가 과거의 자취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돌아보게 하는 지표가 된다. 사람의 발길이 뜸한 도서 지역 바깥, 즉 근대 산업화의 중심인 도심 지역에서는 자연유산을 제대로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는 방증이 된다. 그럼에도 우리 도시의 한편에는 민족의 역사를 간직한 큰 나무들이 분명히 살아있다.

인천광역시가 '과거와 현재의 대화가 살아 움직이는 도시'로 우뚝 서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안에 살아있는 큰 나무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한다. 그것이 지금의 우리와 내일의 후손들이 인천광역시를 진정 아름다운 역사의 도시로 마음 깊이 간직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계기가 될 것이다. 🌳

EXHIBITION

새빙

새것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

새것을 마주했을 때
사람들의 행동 패턴 분석

3. 7. ~ 5. 6.

인천시청역
열린박물관



서예를 감상하다

서예의 예술성과
서예5체의 발달사

~ 3. 31.

송암미술관
특별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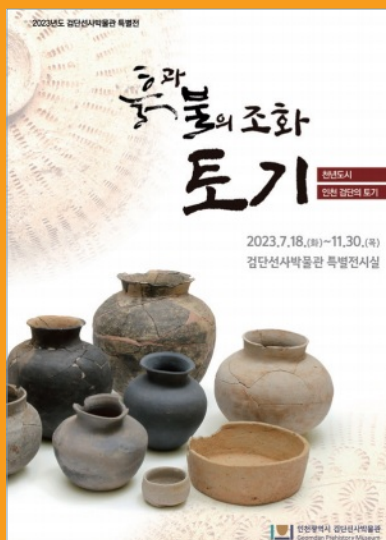


흙과 불의 조화, 토기

검단신도시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신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 토기

~ 3. 31.

검단선사박물관
특별전시실



시골쥐의 도시여행

오랜 친구인 시골쥐와 도시쥐,
새로운 친구인 도시 고양이가
함께 하는 도시 여행 이야기

연중

인천도시역사관
3층 어린이 전시실



기관	전시명	전시내용	전시기간	전시장소
인천시립박물관	임경업 설화 체험전	연평도 임경업 장군을 재조명하는 어린이 체험 전시	5. 1. ~ 6. 30.	인천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
인천시립박물관	플라스틱 고고학	플라스틱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EDUCATION

	기관	교육명	교육내용	교육기간	대상	신청방법
어린이	인천시립 박물관	꼬꼬마, 가재 박물관으로	옛날 물건 탐구 및 미니북 제작	4 ~ 6월 매주 화요일	회 당 유아 단체 25명 이내	홈페이지 추첨 (3. 11. ~ 3. 15.)
		가재 박물관으로	상설전시실 연계 학년별 교과 체험	4 ~ 7월 매주 수 ~ 금요일 10 ~ 12시	초등학교 단체	홈페이지 추첨 (2. 20. ~ 3. 15.)
		가재 박물관으로 - 국가의 보장지, 강화도	국가 위기 시기 강화도의 의미와 화문석을 활용한 소원발 제작	5. 11. 토요일 14 ~ 16시	회 당 초등학교 3 ~ 6학년 20명	홈페이지 선착순 (5. 1. ~ 5. 8.)
				6. 8. 토요일 14 ~ 16시		홈페이지 선착순 (5. 29. ~ 6. 5.)
	송암미술관	알송달송미술관	상설 전시 연계 체험 활동	5 ~ 6월 수 · 목요일 10시 ~ 11시 40분	회 당 초등학교 3 ~ 5학년 20명 내외	홈페이지 선착순 (3. 18. ~ 3. 29.)
청소년	한국이민사 박물관	포와로 가는 길	상설전시실 관람 및 갤러코 만들기 체험	3. 29. ~ 6. 21. 매주 금요일	회 당 중 · 고등학교 단체 25명 내외	홈페이지 선착순 (3. 11. ~ 3. 15.)
성인	인천시립 박물관	2030박물관클라쓰	요가로 만나는 인문학	5. 18. / 5. 25. 토요일	회 당 20~30대 20명	홈페이지 선착순 (4. 22. ~ 5. 6.)
	송암미술관	하하호호미술관	작품 이름표를 통한 감상법 및 내온사인 제작	5 ~ 6월 매주 수요일 오전	회 당 60세 이상 15명 내외	홈페이지 선착순 (4. 15. ~ 4. 26.)
	한국이민사 박물관	이민역사기행	초기 이민에 대한 이해 및 현장 도보 답사	5. 18. 토요일	회당 20명	홈페이지 선착순 (5. 3. ~ 5. 14.)
				6. 15. 토요일		홈페이지 선착순 (5. 3. ~ 5. 14.)
	송암미술관	인문학으로 읽는 한국 서예	한국 근현대 서예와 인천 서예가 탐구	4. 5. ~ 4. 26. 수요일 14 ~ 17시	일반 시민	유선 및 홈페이지 선착순 (3. 13. ~ 4. 3.)
가족	인천시립 박물관	우리가족 박물관 가는 날	대불호텔 · 중화루 탐구 및 미니어처 조립	5. 18. 토요일 10 ~ 12시	회 당 초등학생 동반 가족 9팀	홈페이지 선착순 (5. 6 ~ 5. 10.)
				6. 15. 토요일 10 ~ 12시		홈페이지 선착순 (6. 3. ~ 6. 7.)
	한국이민사 박물관	네임택 달고 세계로	초기 하와이 이민 여정 이해 및 가족 네임택 제작	3. 23. 토요일 14 ~ 16시	회 당 초등학생 동반 가족 6팀 20명 내외	홈페이지 선착순 (3. 18. ~ 3. 20.)
				4. 27. 토요일 14 ~ 16시		홈페이지 선착순 (4. 22. ~ 4. 24.)



초등학교 운동장 아래, 인천 관아터

한낮의 뜨거움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던 2016년 여름, 문학초등학교 한쪽에 낯선 광경이 보였다. 강당을 짓기에 앞서 이루어진 발굴조사였다. 운동장을 만들면서 1.5m가량 복토한 땅 밑에서 고려 후기~근대에 이르는 건물의 자취가 드러났다. 이 가운데 조선시대 건물지는 인천 관아의 배치가 자세하게 담겨있는 『화도진도』를 통해 관아 서쪽의 창고나 부속건물의 일부로 추정되었다. 비록 기둥 자리와 기단만 남아있는 모습이지만 인천 관아가 100여 년 만에 세상에 다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학교가 있는 문학산 북쪽, 문학동 일대는 오랫동안 인천의 읍치(邑治)가 자리한 곳이었다. 문학산은 조선 읍지에 남산(南山)으로도 전하는데 산 북쪽에 관아가 자리했기 때문이었다. 조선 말 『인천부읍지』에 따르면 인천 관아는 객사 30칸, 동헌 10칸, 내동헌 33칸 등 제법 큰 규모를 자랑했다. 그러나 왕조의 몰락과 운명을 같이하면서 관아 건물은 부친군청으로 사용되다가 1918년 부친공립보통학교(현 문학초등학교)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동헌과 객사 일부만 남았다. 또 1950년경 교사(校舍)가 들어서면서 그나마 남은 관아 건물도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이후 주변으로 주택이 빠르게 들어서 빈 땅을 찾기 어렵게 되면서 옛 모습을 짐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되었다.

발굴 결과 관아의 범위는 학교 교정은 물론 그 너머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뻗뻗하게 들어선 주변 건물 아래에 건물터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옛 관아의 규모와 실체를 밝히려면 앞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밀려 땅속에 묻힌 옛 인천 고을의 모습이 자못 궁금해진다.